

『관자』의 경제적 성인관

이 오 룬*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관자』의 성인관을 탐구하는 데에 있다. 중국철학에서 성인은 하나의 학파 혹은 한 명의 학자의 사상이 집약되어 있는 지점이다. 따라서 『관자』의 성인관을 연구하면 『관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관자』의 성인은 도를 체득한 인물로서 이러한 도는 허(虛)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관자』의 성인은 허라는 특징에 근거하여 뛰어난 정신과 육체를 획득하고 사물의 본질을 간파하여 가장 적절한 선택을 내리는 인물로 묘사된다. 또한 형체와 명칭을 일치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동시에 법을 제정하는 인물로서 형체와 명칭을 일치시키고 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을 통해 정치의 안정을 구현한다.

뿐만 아니라 재물을 축적하는 데에도 일가견이 있는데,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도시를 건설하거나 근검절약을 몸소 실천하여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한다. 즉 물질적인 풍족함에 기초하여 내정을 견고히 다지는 인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의 활동은 사회의 안정 및 국력의 증강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관자』에 따르면 성인은 패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는 압도적인 무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에게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조화를 추구한다.

이처럼 『관자』는 성인을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토대로 정치의 안정에 기여하는 인물로 논술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자』의 성인을 경제적인 성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주제어] 성인, 허(虛), 형명(形名), 법(法), 패도(霸道)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재물의 축적과 내정의 운영 |
| II. 허(虛)의 체득과 인식의 탁월함 | V. 패도(霸道)의 달성과 종주국으로서의 외교 |
| III. 형명(形名)의 일치와 법의 제정 | VI. 나가는 말 |

*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 lihen0912@nate.com

I. 들어가는 말

선진 시기에 편찬된 전적들 가운데는 『맹자』·『순자』처럼 “자”(子)로 이름 붙는 전적들이 상당히 많다. 『관자』 역시 그 가운데 하나이며, 일반적으로 춘추시기 제나라의 재상인 관중이 지은 것으로 여겨진다.¹⁾ 그러나 『관자』는 “자”로 이름이 붙는 여러 전적들과는 뚜렷한 차이를 가진다. 왜냐하면 “자”로 이름이 붙는 여러 전적들은 기본적으로 일관된 주제를 가지지만 『관자』가 토론하는 내용들은 다방면에 걸쳐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복잡하기 때문이다.²⁾ 더군다나 그 속에 존재하는 산일(散逸)된 편들과 도처에서 등장하는 오자 혹은 탈자는 『관자』를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경전으로 만든다. 그렇지만 난해한 전적으로 분류되는 『관자』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분명히 체계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관점들이 있다. 본 논문이 연구하고자 하는 성인에 대한 관점이 전형적인 예이다.

중국철학에서 성인이라는 개념은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며, 어떠한 학자 혹은 학파를 막론하고 모두 성인에 대한 명확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유가에서 말하는 성인은 유가 사상의 창시자이자 옹호인이 되고 묵가에서 주장하는 성인은 묵가 사상을 실현하는 인물이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맹자와 순자처럼 동일한 학파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학자들마다 성인에 대한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한다. 어쨌든 간에 고대 중국인들에게 있어 성인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개념으로 이들은 성인이라는 신성한 인물에 의탁함으로써 학문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장을 전개하며, 최종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자』의 성인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아무리 『관자』 속에서 토론하는 주제가 다양하고 그 내용이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성인을 연구하면 곧 『관자』가 추구하는 이상과 철학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성인에 대한 『관자』의 논술을 연구하는 것은 『관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만들고, 중국철학에서 다루는 성인의 외연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다.

『관자』는 다양한 영역에서 성인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으며, 성인의 존재적 근거와 능력 및 작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관자』 속에 등장하는 성인에 대한 논술을 분석하고 성인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관자』를 연구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은 것으로 『관자』의 연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

1) 하지만 오래전부터 『관자』는 한 사람의 손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며,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학파의 주장들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謝浩範·朱迎平, 『管子全譯』, 貴州人民出版社, 1996, 8~9쪽 참조.

2) 馮友蘭, 『中國哲學史新編(上)』, 人民出版社, 1998, 116쪽.

II. 허(虛)의 체득과 인식의 탁월함

중국철학의 다른 전적들과 마찬가지로 도(道)는 『관자』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인 동시에 성인을 이해하는 첩경이다. 『관자』 속에서 도는 성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성인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관자』의 성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에 대한 『관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관자』는 “도란 움직여도 그 형태를 보지 못하고, 배풀어도 그 덕을 보지 못하며 만물이 모두 그 혜택을 입지만 그 오묘함을 알 수 없다.”,³⁾ “도란 한 사람이 써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했고, 천하에 시행하여도 부족하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⁴⁾ “무릇 도는 뿌리도 없고 줄기도 없으며, 잎사귀도 없고 꽃도 없다. (그렇지만) 만물이 (그로 인해) 생기고, 만물이 (그로 인해) 이루는, 그것을 도라고 한다.”⁵⁾ 등 불가지성과 오묘함·적합성과 정확성·만물의 근원이라는 각도로부터 도를 토론하며 도의 다양한 특성을 나열한다.⁶⁾ 이렇듯 『관자』는 다방면에 걸쳐 도를 토론하지만 『관자』 속에서 도는 하나의 근본적이고 뚜렷한 특징을 가진다. 그것은 바로 도가 허(虛)를 기초로 한다는 점이다.

허무와 무형을 도라 한다.⁷⁾

하늘의 도는 텅 비어 형태가 없다. 텅 비면 다함이 없고, 형태가 없으면 거역하는 바가 없다. 거역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만물에 두루 유통하여 변하지 않는다.⁸⁾

『관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도가 허라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도는 허하기 때문에 형체를 가지지 않으며, 형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물건에도 구속받지 않고 어디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관자』에 따르면 도는 허라는 특성으로 인해 만물에게 고정된 틀을 강요하지 않고 인간의 수양과 구체적인 사업을 돕고 완성시킬 수 있다. 따라서 『관자』는 성인이라면 마땅히 도, 다시 말해 허를 체득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도가 천지의 사이에 있으면 그 보다 큰 것이 없고, 그보다 작은 것이 없기 때문에 “멀리 있지 않지만 (그 경지에) 도달하기는 어렵다.”고 한 것이다. 비움이 사람과 틈이 없지만 오직 성인만이 비움의 도를 얻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머물러 있지만 터득하기 어렵다.”고 한다.⁹⁾

3) 『管子』, 「心術上」, “道也者, 動不見其形, 施不見其德, 萬物皆以得, 然莫知其極.”

4) 『管子』, 「白心」, “道者, 一人用之, 不聞有餘, 天下行之, 不聞不足.”

5) 『管子』, 「內業」, “凡道無根無莖, 無葉無榮, 萬物以生, 萬物以成, 命之曰道.”

6) 현존하는 『관자』 76편 가운데 도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는 편은 65편에 이르며, 도라는 글자는 486차례 출현한다. 『관자』에서 도는 “우주만물의 본원”, “사물 보편 규율”, “자연 규율”, “사회 체용”, “인도하다”, “도로”, “기타의 뜻”이라는 7가지의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李居洋, 『『管子』在道家』, 『管子與齊文化』, 北京經濟學院出版社, 1990, 91쪽 참조.

7) 『管子』, 「心術上」, “虛無無形謂之道.”

8) 『管子』, 「心術上」, “天之道, 虛其無形. 虛則不屈, 無形則無所位注, 無所位注, 故偏流萬物而不變.”

이곳에서 『관자』는 도가 크고 작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도의 가장 큰 특성인 허는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서술한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허를 깨달을 수는 없고 오직 성인만이 체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는데, 『관자』에 따르면 성인과 범인의 차이는 결국 허의 체득 여부에 달려있다. 『관자』는 도를 규정할 때에 허가 가지는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것을 성인과 관련시킴으로써 성인의 형이상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관자』 속에서 성인은 허라는 확고부동한 기반을 가지기 때문에 그는 근본적으로 범인과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관자』는 성인의 정신과 육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마음은 미혹된 뜻이 없으니 밖으로 사악함과 재앙이 없다. 마음은 안에서 온전하고, 몸은 밖에서 완전해진다. 하늘의 재앙을 만나지 않고 사람의 해침에도 부닥치지 않는다. 이를 일러 성인이라 한다. 사람이 바르고 고요하면 몸이 넉넉하고 관대해지고, 귀와 눈이 총명해지며, 근육이 펴지고 뼈가 강해진다. 이에 큰 하늘을 이고 큰 땅을 밟으며, 허공을 바라 보고 해와 달을 관찰한다. 경건하고 삼가여 잘못되는 일이 없으며, 나날이 그 덕을 새롭게 하여 두루 천하를 알아 사방의 모든 것에 미칠 수 있다.¹⁰⁾

『관자』에 따르면 성인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고, 물리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의 내·외면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자』에서는 만일 허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건강한 신체 기관을 얻을 수 있다고 서술하는데, 이와 같은 묘사는 바로 성인에게 해당된다. 『관자』는 성인이 정신과 육체적인 측면에서 모두 이상적인 상태를 가지며 이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곳에서 주의 할만한 점은 『관자』가 성인의 정신과 육체로부터 인식의 정당성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관자』는 성인의 완전무결한 정신과 육체는 뛰어난 인식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며, 성인이 만물의 실질적인 정황을 뚜렷이 알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따라서 『관자』는 성인이 어떠한 조건 아래에서도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고 매순간마다 정확한 판단을 내린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며,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성인은 기미를 두려워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밝게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니, 성인이 증오하는 것은 안에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증오하는 것은 밖에 있다. 성인은 장차 행동하려 할 때 반드시 미리 알고, 어리석은 사람은 위험이 닥쳐도 피하지 않는다. 성인은 때를 살펴서 때를 어기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잘 도모하나 때를 알아서 행동하는 것보다 못하다. 때를 잘 살피는 사람은 짧은 시간이라도 공(功)이 많다.¹¹⁾

도라는 것은 위로는 무한하고 광대함은 끝이 없어서 모든 사물에 운용된다. 그래서 겨우 하나의 언

9) 『管子』, 「心術上」, “道在天地之間也, 其大無外, 其小無內, 故曰不遠而難極也. 虛之與人也無間, 唯聖人得虛道, 故曰並處而難得.”

10) 『管子』, 「內業」, “中無惑意, 外無邪災. 心全於中, 形全於外, 不逢天災, 不遇人害, 謂之聖人. 人能正靜, 皮膚裕寬, 耳目聰明, 筋信而骨強. 乃能戴大圓, 而履大方, 鑒於大清, 視於大明. 敬慎無忒, 日新其德, 徧知天下, 窮於四極.”

11) 『管子』, 「霸言」, “聖人畏微而愚人畏明, 聖人之憎惡也內, 愚人之憎惡也外, 聖人將動必知, 愚人至危易辭. 聖人能輔時, 不能違時. 知者善謀, 不如當時, 精時者, 日少而功多.”

설에만 통하고, 한 가지 다스림에만 밝고, 한 가지 일만 전공하는 사람은 견해가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기 쉽고 전체를 폭넓게 바라보지 못한다. 성인은 이로 말미암아 하나의 언설만으로는 다양한 뜻을 포괄할 수 없음을 알고, 폭넓게 연구하여 필요한 내용을 선택한다. 성인은 한 가지 일만으로는 다양한 현상을 포괄할 수 없음을 알고, 여러 가지 계획 방안을 검토하여 그것의 효과를 비교한다.¹²⁾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에 주목하는 범인과 달리 『관자』가 생각하는 성인은 감추어져 은미한 것을 파악하는 데에 더욱 집중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시의적절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기술한다. 뿐만 아니라 도가 허라는 특성을 가지는 것처럼 성인이 인식하는 내용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고정 관념을 가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관자』는 성인이 만물을 다각도로 관찰하고 여러 상황들을 고려한 뒤에 가장 적합한 행위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관자』 속에서 성인은 허를 채득한 까닭에 완벽한 정신과 육체를 가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느 누구보다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다. 『관자』가 성인을 논술할 때에 인식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성인이 전개하는 모든 활동이 자신의 뛰어난 인식 능력에 입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관자』는 “정령을 반포하여 시행할 때는 시령에 맞추어야 한다. 시령에 맞추지 않으면 반드시 천시(天時)가 오는 까닭을 관찰하고 순응해도 오관(五官)이 어지럽고 육부(六府)가 어두우니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오직 성인만이 사시를 안다. 사시를 알지 못하면 나라의 기틀을 상실한다.”¹³⁾라고 말하여 성인의 인식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한다. 즉 성인의 행위는 자신의 뛰어난 인식 능력에 근거하며 그 범위는 국가를 경영하는 데에까지 이른다는 것이다.

Ⅲ. 형명(形名)의 일치와 법의 제정

현실 속에 존재하는 물체는 반드시 형체를 가지며 각각의 형체는 마땅히 불려야 할 명칭이 있다. 형체와 명칭의 문제는 『관자』가 줄곧 주의를 기울이는 문제이며 주된 논의의 대상이다. 중요한 점은 『관자』 속에서 이 문제가 인식 주체와 대상 사이의 정합성 문제를 다루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 질서를 유지하는 측면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군주가 군주답게 제 할 일을 못하면 신하도 신하 노릇을 다하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면 자식도 자식의 도리를 잃을 것이다. 위사람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체통을 잃으면 아랫사람이 분수나 절도를 어긴다. 위아래 모든 사람이 화목하지 못하면 군주의 명령이 시행되지 않는다.”¹⁴⁾로부터 알 수 있듯이 『관자』는 만일 군주, 신하, 아버지, 아들, 위사람과 아랫사람 등 형

12) 『管子』, 「宙合」, “道也者, 通乎無上, 詳乎無窮, 運乎諸生是故辯於一言, 察於一治, 攻於一事者, 可以曲說, 而不可以廣舉. 聖人由此知言之不可兼也, 故博爲之治而計其意. 知事之不可兼也, 故名爲之說而況其功.”

13) 『管子』, 「四時」, “令有時, 無時則必視順天之所以來, 五漫漫, 六惝惝孰知之哉. 唯聖人知四時. 不知四時, 乃失國之基.”

14) 『管子』, 「形勢」, “君不君, 則臣不臣, 父不父, 則子不子. 上失其位, 則下隳其節. 上下不和, 令乃不行.”

체가 그에 합당한 명칭을 얻지 못하거나 명칭이 가지는 의미를 온전히 발휘할 수 없다면 사회의 혼란이 출현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관자』는 각각의 사물에 대해 합당한 명칭을 부여하고 사물 역시 반드시 명칭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명칭에 의거하여 실재를 살피고, 실재에 비추어 명칭을 확정한다. 명칭과 실재는 서로 의존하고, 서로 설명한다. 명칭과 실재가 서로 부합하면 다스려지고, 부합하지 않으면 어지러워진다.”¹⁵⁾는 형체와 명칭이 서로 의존하는 것이며, 형체와 명칭이 일치될 때만이 이상적인 정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관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형체와 명칭을 일치시키는 과정은 누구나 참여할 수 없다. 누구나 참여하여 자의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형체와 명칭에 대한 혼란만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에 참여하는 인물은 한편으로 형체와 명칭의 근본을 통찰함으로써 이에 대한 확고한 표준을 세워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권위를 가져야 한다. 여기에서 『관자』는 성인의 역할을 자연스레 강조한다. 『관자』에 따르면 성인은 형체와 명칭을 통일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사물은 고유한 형태가 있고, 형태는 고유한 이름이 있으니 명분이 실재에 합당한 것을 성인이라 한다.¹⁶⁾

“사물은 고유한 형태가 있고 형태는 고유한 이름이 있다”는 이것은 이름이 실재를 벗어나지 못하며, 실재가 이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우선 형태로 나타나고, 형태로 이름을 정하며, 언어로 이름을 바로잡기 때문에 성인이라 한다.……그 형태에 따라 이름을 짓는 것, 이것이 따름의 법칙이다. 이름이란 성인이 만물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사람은 억지로 구하는 데 뜻을 세우고, 꾸미는 데 힘쓰고 능력에 의미를 두고,¹⁷⁾ 인위적으로 움직이는데, 성인은 인위적으로 하려고 함이 없다. 인위적으로 하려고 함이 없으면 사물의 차이를 인정한다.¹⁸⁾

만물은 모두 형체를 가지며 형체는 반드시 명칭이 뒤따르는데, 『관자』는 형체와 명칭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성인이 반드시 개입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성인은 형체에 근거하여 그에 합당한 명칭을 부여하며, 명칭이 세워짐에 따라 만물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¹⁹⁾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성인은 허의 이치를 체득한 까닭에 형체에 이름을 붙일 때에는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각각의 사물이 가진 특수성을 인정할 뿐이다. 『관자』는 성인이 형체를 관찰하여 그에 합당한 명칭을 명명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파악한다. 왜냐하면 성인이 정확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형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15) 『管子』, 「九守」, “循名而督實, 按實而定名, 名實相生, 反相爲情. 名實當則治, 不當則亂.”

16) 『管子』, 「心術上」, “物固有形, 形固有名, 名當, 謂之聖人.”

17) 이 문장에 해당되는 원문은 “未於能”이다. 미(未)는 미(味)와 같으며, 전념하다는 의미의 미(迷)이다. 陣鼓應, 『管子四篇詮釋』, 商務印書館, 2006, 159쪽.

18) 『管子』, 「心術上」, “物固有形, 形固有名, 此言名不得過實, 實不得延名. 姑形以形, 以形務名, 督言正名, 故曰聖人. ……以其形因爲之名, 此因爲之術也. 名者, 聖人之所以紀萬物也. 人者立於強, 務於善, 未於能, 動於故者也, 聖人無之. 無之則與物異矣.”

19) 曹峰, 『中國古代“名”的政治思想研究』, 上海古籍出版社, 2017, 142쪽.

사회의 혼란을 억제시키는 측면에서도 주요한 작용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형체와 명칭을 일치시키는 것 이외에도 『관자』는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법을 제정하고 정치의 영역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관자』는 법에 관해 “법을 따르지 않으면 국사(國事)에 상규(常規)가 없고, 법이 법답지 않으면 명령이 시행되지 않는다.”²⁰⁾ · “법은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보존되고 망하며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고, 성군이 천하의 대의(大儀)를 행사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다. 군신 · 상하 · 귀천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다’라고 한다.”²¹⁾ · “현명한 군주는 백성을 아낀다며 그 법을 훼손하지 않으니 법이 백성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다.”²²⁾라고 설명하는데, 법이란 국가를 다스리는 요체로서 신분의 높낮음을 막론하고 모두 준수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가를 지탱하는 대다수의 백성들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²³⁾ 이처럼 법은 정치와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에 가장 유효한 수단이지만 이러한 법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출처를 가진다. 이 때문에 『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림식과 곡척은 사각형과 원형의 표준이다. 정교한 눈과 날렵한 손이라도 변변찮은 그림식과 곡척을 사각형과 원형의 표준으로 삼는 것만 못하다. 정교한 사람이 그림식과 곡척을 만들었으나 그림식과 곡척을 폐기하고서 사각형과 원형을 그릴 수는 없다. 성인이 법을 만들었으나 법을 폐기하고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그러므로 명철한 지혜와 고상한 행실이 있어도 법을 등지고 다스리면 이는 그림식과 곡척을 폐기하고서 사각형과 원형을 그리는 것과 같다.²⁴⁾

이곳에서 『관자』는 그림식과 곡척을 처음으로 만든 인물을 비유로 들어 법이 성인에 의해 제정되었음을 설명한다. 『관자』에 따르면 그림식과 곡척은 매우 정교한 부분까지도 가늠할 수 있는 인물이 최초로 창작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물은 그림식과 곡척을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선과 곡선을 그려낼 때에 항상 그림식과 곡척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림식과 곡척에 대한 설명을 이어 『관자』는 법을 처음으로 제정한 인물이 바로 성인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법이 성인의 소산물임을 명확히 지적한다.²⁵⁾ 또한 그림식과 곡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인이 법을 최초로 제정한 뒤에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에 근거하여 국정을 운영한다고 설명한다. 즉 성인은 법을 제정한 인물인 동시에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에 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관자』는 성인 · 형체와 명칭의 일치와 법의 제정을 한곳에 묶어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20) 『管子』, 「法法」, “不法法則事毋常, 法不法則令不行.”

21) 『管子』, 「任法」, 法者不可恆也, 存亡治亂之所從出, 聖君所以爲天下大儀也, 君臣上下貴賤皆發焉, 故曰法.

22) 『管子』, 「法法」, “不爲愛民虧其法, 法愛於民.”

23) 법에 대한 『관자』의 중시는 상당히 두드러진다. 『관자』는 법가처럼 모든 사람이 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李增, 「『管子』法思想」, 『管子學刊』 1, 2001, 7쪽 참조.

24) 『管子』, 「法法」, “規矩者, 方圓之正也. 雖有巧目利手, 不如拙規矩之正方圓也. 故巧者能生規矩, 不能廢規矩而正方圓也. 雖聖人能生法, 不能廢法而治國. 故雖有明智高行, 倍法而治, 是廢規矩而正方圓也.”

25) 이러한 견해는 황로학에서 비교적 강하게 나타난다. 황로학은 성인을 도(道) - 법(法) 이념의 육신화로 본다. 鄭開, 「試論黃老政治哲學的“內聖外王之道”」, 『湖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2, 2019, 8쪽.

(사물의) 시초를 추구하고 실재를 계산하여 그것이 유래한 바를 탐색한다. 그 형상을 알면 그 모양을 찾고, 그 이치를 따르면 그 실정을 알며, 그 실마리를 찾으면 그 이름을 안다.……그러나 하늘은 하나의 사물을 위하여 그 때를 왜곡하지 않고, 현명한 군주와 성인은 또한 한사람을 위하여 그 때를 왜곡하지 않는다. 하늘은 그 행할 바를 행하여 만물이 그 이익을 얻으며, 성인 역시 그 행할 바를 행하여 백성이 그 이익을 얻는다. 이 때문에 만물이 고르게 이익을 얻음이 크고 많다. 그러므로 성인의 다스림은 자신을 고요히 하여 기다리는 것이다. 사물이 이르러서 명분이 저절로 강구된다. 명분을 바로 잡으면 저절로 다스려지고, 명분이 기이하면 저절로 폐기된다. 명분이 바르고 법이 갖추어지면 성인은 일이 없다.²⁶⁾

『관자』는 형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로부터 명칭을 찾아낸다는 점을 계속해서 견지하며, 이것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성인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성인은 법을 제정하고 이러한 법을 만민에게 평등하게 적용한다. 형체와 명칭을 일치시키는 것과 법을 제정하는 것은 모두 사회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자』는 성인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그 이로움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형체와 명칭이 일치되고 법이 세워지면 성인이 더 이상 전면에서 나서서 활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성인에 대한 이와 같은 논술을 통해 『관자』는 사회 안정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성인이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물이라는 점을 매우 강조한다.

IV. 재물의 축적과 내정의 운영

춘추전국 시대 제후국들 사이에서 발생한 끊임없는 겸병 전쟁은 『관자』로 하여금 일찍이 재물이 가지는 중요성을 간파하게 만들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은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재물이란 일용의 양식에서부터 귀중품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각종 제반 요소들을 가리키며, 『관자』는 기본적으로 재물의 탄탄한 기초위에서 패업을 이룰 수 있고 나아가 왕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관자』 첫머리에서는 “무릇 영지를 지니고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임무가 사계절을 살펴서 농사가 잘되게 하는 데 있고, 그 직분은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가 가득 차도록 하는데 있다. 나라에 재물이 많으면 멀리 있는 사람도 오고, 토지가 모두 개간되면 백성이 머물러 산다. 창고가 가득차면 예절을 알고,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이 풍족하면 영광과 치욕을 안다.”²⁷⁾라고 하여 재물의 풍족함이 중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으며,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토지의 구획·농업의 극대화·시장의 설치·세금의 형평성·물가의 조절·도량형과 화폐의 개혁 등 재물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26) 『管子』, 「白心」, “原始計實, 本其所生. 知其象則索其形, 緣其理則知其情, 索其端則知其名. ……然而天不爲一物枉其時, 明君聖人亦不爲一人枉其法. 天行其所行而萬物被其利, 聖人亦行其所行而百姓被其利. 是故萬物均既誇衆矣. 是以聖人之治也, 靜身以待之. 物至而名自治之. 正名自治之, 奇身名廢. 名正法備, 則聖人無事.”

27) 『管子』, 「牧民」, “凡有地牧民者, 務在四時守在倉廩. 國多財則遠者, 來地辟舉則民留處. 倉廩實則知禮節, 衣食足則知榮辱.”

『관자』에게 재물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국강병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며 패업과 왕업을 이룩하는 관건이 된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관자』는 재물의 풍족함이 곧 민심을 안정시키고 국력을 강화시키는 전제라고 믿는다.²⁸⁾ 이 때문에 『관자』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문장과 내용들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도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관자』가 말하는 성인은 또한 재물의 획득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

패업과 왕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천하의 성인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나라의 도움을 받드시 지세가 안전하고 전실하고, 땅이 기름지고, 산을 등지고, 좌우로 강이 흐르거나 호수가 있고, 성 안에 건설된 배수로를 따라 물이 강으로 잘 빠지는 곳으로 정한다. 이에 그 천연 자원과 땅에서 생기는 이익으로 백성을 먹여 살리고 여러 가축을 기른다. 천하의 백성이 모두 군주의 덕에 귀부하고, 그 의로움을 생각한다.²⁹⁾

이곳에서 『관자』는 성인이 도시를 계획할 때에 지리적 위치와 토지의 비옥함·산수(山水)의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한다고 말한다. 본래 도시는 한번 정해지면 쉽게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반 조건들을 잘 따져본 뒤에 도시의 건설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자』에 따르면 성인은 도시를 계획하기 전에 먼저 도시 주변의 환경 요소들을 헤아린 뒤에 물질적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을 도시로 선정하고 건설한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각종 자원이 풍부해지고, 백성들의 삶을 제고되며, 천하의 민심이 모두 성인과 함께하게 된다고 생각한다.³⁰⁾ 『관자』의 성인은 주변 환경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도시를 계획·건설하고 물질적인 이득을 얻어내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관자』는 성인이 근검절약을 통해 재물의 축적을 실행으로 옮기는 인물이라고 서술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인이 정치를 할 때, 궁궐을 검소하게 하고 수레를 간소하게 치장하여 (그 여력으로) 나라의 창고를 채우면 나라가 반드시 부유해지고, (군주의) 지위가 반드시 존귀해진다. 의복을 분수에 맞게 입고, 완상(玩賞)하는 사치품을 없애 농사일에 힘쓰면 재용(財用)이 반드시 넉넉해지고, 몸이 반드시 편안해질 것이다. 이익이 없는 일과 낭비되는 비용을 없애고, (이웃나라와) 서로 예물을 주고 받으며 예를 행하면 동맹국이 반드시 많아지고 외교가 원만해질 것이다.³¹⁾

성인이 재물을 풍족하게 만드는 다른 하나의 방법은 사치를 최소화 하고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다. 『관자』는 성인이 궁실과 수레·의복과 진귀한 물건 등에 대해 관심을 줄이고, 창고를 채우며 근본을 만드는

28) 張越, 「論『管子』의富民思想」, 『管子學刊』 1, 2007, 12쪽.

29) 『管子』, 「度地」, “能爲霸王者, 蓋天下聖人也. 故聖人之處國者, 必於不傾之地, 而擇地形之肥饒者, 鄉山, 左右經水若澤, 內爲落渠之寫, 因大川而注焉. 乃以其天材地之所生利, 養其人以育六畜, 天下之人皆歸其德而惠其義.”

30) 유가는 교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먼저 부유하게 만들지만 『관자』가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목적은 철저히 국가의 부강을 달성하는 데에 있다. 정용미, 「『管子』의 정치관에 나타난 위민의식」, 『철학논총』 59, 새한철학회, 2010, 495쪽 참조.

31) 『管子』, 「禁藏」, “故聖人之制事也, 能節宮室適車輿以實藏, 則國必富, 位必尊. 能適衣服, 去玩好以奉本, 而用必贍, 身必安矣. 能移無益之事無補之費, 通幣行禮而黨必多交必親矣.”

일에 앞장서면 결과적으로 국가에 재물이 풍족해진다고 주장한다. 『관자』의 성인은 생산을 극대화 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절약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로서 재물을 축적하는 측면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있다.

성인에 대해 『관자』가 주목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재물을 다루는 능력이다. 『관자』는 성인이 이익의 측면에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으며, 재물을 풍족하게 만드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주의해야할 점은 성인이 재물을 축적하는 이유가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다는 것이다. 『관자』는 “성인을 성인으로 여기는 이유는 백성에게 (재원을) 잘 나누어주기 때문이다. 성인이 백성에게 나누어줄 수 없으면 백성과 다르지 않다. 자기도 부족하면서 어떻게 성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라에 일이 있으면 백성에게 비용을 거두지만 일이 없으면 백성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³²⁾라고 하여 유사시를 제외하고는 성인의 재물을 백성들에게 고루 분배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이처럼 『관자』는 성인이 재물을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인물이라고 인식하는데, 성인은 풍부한 물질 자원을 바탕으로 국가의 내정을 견고히 만드는 데에 치력한다. 즉 성인은 풍족한 재물을 근간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정치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관자』는 여러 곳에서 성인이 국가를 경영하고 관리하는 측면을 강조한다.

이 때문에 봄에 시들어 떨어짐, 가을에 꽃이 필, 겨울에 우레 소리, 여름에 서리나 눈이 오는, 이것은 모두 자연의 기가 해치는 것이다. 형벌과 덕이 계절을 뒤바꾸어 시행되고 순서를 잃어버리면 해치는 기운이 빨리 이른다. 해치는 기운이 빨리 이르면 나라에 많은 재앙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성왕은 때에 맞추어 정령을 시행하고, 교령을 만들어 군사훈련을 하고, 제사를 지내 덕을 실천한다. 이 세 가지는 성왕이 천지의 운행과 조화를 이루는 까닭이다.……진실로 그것을 행할 수 있으면 오곡이 번성하고, 육축이 번식하고, 군대가 강해진다. 다스림이 계속되면 나라가 창성하고, 포박함이 계속되면 나라가 망한다.³³⁾

사계절의 운행에는 추위와 더위가 있어 성인은 그것을 본받아 문과 무를 둔다. 천지의 방위에는 앞과 뒤가 있고, 왼쪽과 오른쪽이 있으니 성인은 그것을 본받아 질서를 세운다. 봄은 왼쪽에서 생성하고, 가을은 오른쪽에서 성숙한다. 여름은 앞에서 성장하고, 겨울은 뒤에서 갈무리한다. 나고 자라나는 일은 문이고, 거두어 갈무리하는 일은 무다. 이 때문에 문사는 왼쪽에 있고, 무사는 오른쪽에 있다. 성인은 이를 본받아 법령을 행하고 사리(事理)를 다스린다.³⁴⁾

32) 『管子』, 「乘馬」, “聖人之所以爲聖人者, 善分民也。聖人不能分民, 則猶百姓也。於已不足, 安得名聖。是故有事則用, 無事則歸之於民。”

33) 『管子』, 「四時」, “是故春凋秋榮冬雷夏有霜雪, 此皆氣之賊也。刑德易節失次, 則賊氣邀至。賊氣邀至, 則國多災殃。是故聖王務時而寄政焉, 作教而寄武, 作祀而寄德焉。此三者, 聖王所以合於天地之行也。……信能行之, 五穀蕃息, 六畜殖, 而甲兵強。治積則昌, 暴虐積則亡。”

34) 『管子』, 「版法解」, “四時之行, 有寒有暑, 聖人法之, 故有文有武。天地之位, 有前有后, 有左有右, 聖人法之, 以建經紀。春生於左, 秋殺於右。夏長於前, 冬藏於后。生長之事, 文也, 收藏之事, 武也。是故文事在左, 武事在右。聖人法之, 以行法令, 以治事理。”

성인은 정령의 완급을 운용하여 다스리고, 정책의 열고 닫음을 운용하여 장악하고, 물가의 높고 낮음을 운용하여 빼앗고, 인의의 방법을 시행하여 지배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더불어 운명을 같이 한다.³⁵⁾

『관자』에 따르면 성인이 처리하는 내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법령을 내리고 군대를 훈련시키며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잘 지킬 수 있다면 그 국가는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여기서 『관자』는 성인이 정사를 돌볼 때에 엄격히 준수하는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주의 법칙이다. 사계절이 춘하추동의 순서를 가지고 방위가 전후좌우의 구분을 가지는 것 등은 모두 거스를 수 없는 우주의 법칙에 속한다. 『관자』는 성인이 국가를 경영할 때에 세상에 존재하는 우주의 법칙을 본받아 문과 무를 구별하고 질서를 구축함으로써 내정을 처리한다고 설명한다. 우주의 법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성인은 느리고 빠름, 결단과 막힘, 가벼움과 무거움 사이에서 어느 한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며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다. 『관자』의 성인은 우주의 법칙을 내정과 연결시켜 처리하는 인물로서 그의 활동으로 인해 국가는 견고한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관자』는 성인이 내정에 참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옛날의 성왕은 백성이 풍족하게 잘사는 일을 근본으로 삼고, 재앙과 행복이 발생하는 원인을 잘 살폈다. 이 때문에 사소한 일의 하찮은 것까지 삼가고, 이치에 어긋난 잘못된 일은 그 근본을 찾아 다스렸다. 그리하니 경저망동하고 간악하며 거짓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함부로 몸을 놀릴 수 없었다.³⁶⁾

『관자』는 성인이 내정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 일의 경중을 막론하고 잘못된 사항들은 모두 교정되며, 그 결과 잘못된 행위를 범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줄어든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성인의 내정 활동은 사회의 안정을 가져오며 국력의 증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V. 패도(霸道)의 달성과 중주국으로서의 외교

“패업과 왕업의 형세는 하늘을 본받고 땅을 법칙으로 삼으며, 백성을 교화하고 역사를 변화시키며, 천하의 제도를 창제하며, 제후를 작위에 맞게 안배하며, 사방이 모두 빈객으로 와서 복종하도록 하며, 때에 맞추어 천하를 바로 잡는다. 큰 나라는 판도를 줄이게 하고, 풍속이 바르지 못한 나라는 바로잡고, 강한 나라는 약하게 한다. 권세가 큰 나라는 가볍게 하고, 어지러운 나라는 겸병하며, 포악한 군주는 처벌한다. 그 죄를 드러내 욕되게 하고, 지위를 낮추며, 백성을 보호한 뒤에야 다스린다. 국력이 강성한 나라를 일러 패업을 이루었

35) 『管子』, 「山至數」, “聖人理之以徐疾, 守之以決塞, 奪之以輕重, 行之以仁義, 故與天壤同數”

36) 『管子』, 「君臣下」, “昔者聖王本厚生, 審知禍福之所生. 是故慎小事微, 違非索辯以根之. 然則躁作姦邪僞詐之人不敢試也.”

다고 하고, 다른 나라를 아울러 바르게 한 나라를 일러 왕업을 이루었다고 한다.”³⁷⁾로부터 알 수 있듯이 『관자』는 왕도와 패도 모두를 군주가 추구해야할 이상적인 정치 형태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자』는 군주가 덕으로 만민을 감화시키는 것을 주장하기 보다는 압도적인 권력을 구축함으로써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을 더욱 집중적으로 논술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왕도보다 패도의 노선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관자』 또한 “천하의 대중을 얻은 사람은 왕업을 이룰 수 있고, 그 반을 얻은 사람은 패업을 이룰 수 있다.”³⁸⁾라고 하여 왕도와 패도의 구분을 시도하며, 패도가 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임을 알고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왕도보다는 패도가 실현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고 판단한다.

『관자』의 기본적인 관심은 국가의 내실을 다지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이룸으로써 병력을 증강시키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렇게 달성된 부국강병은 주변의 국가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어진다.³⁹⁾ 이 때문에 『관자』는 이상적인 군주란 마땅히 패도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성인 또한 패도를 실현하는 인물로 묘사한다. 특히 『관자』는 외교의 문제를 처리할 때에 성인의 패도적인 성격이 빛을 발한다고 서술한다.

우호적인 나라에는 특별한 혜택을 주고, 적대적인 나라에는 불이익을 주면 명령이 잘 시행된다. 그러므로 성왕은 이러한 원칙을 중시한다. 한 나라를 굴복시켜 정의를 세우면 천하가 두려워할 것이고, 소수의 나라를 도와 여러 나라에 본보기를 세우면 천하의 나라를 품을 것이다. 죄가 있을 때 벌을 주고, 공이 있을 때 상을 주면 또한 천하의 나라가 따라올 것이다.⁴⁰⁾

『관자』에 따르면 성인이 다스리는 국가는 부국강병을 달성하고 패권국이 되어 주변의 다른 여러 국가들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하여 성인이 자신을 잘 따르는 국가에겐 이익을 주고 그렇지 않은 곳에 손해를 입힌다면 외교의 문제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곳에서 『관자』는 우호적이지 않은 나라에 대한 일벌백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이것이 성인과 패권국의 마땅한 권리라고 인식한다. 성인이 다른 국가를 정벌하여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때문에 성왕은 충분히 준비하는 데 힘쓰고, 신중히 때를 지킨다. 준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때에 맞춰 군대를 동원하고, 때가 되면 전쟁을 거행한다. 적국의 견고한 요새를 쳐서 그 나라를 공격하고, 큰 나라를 격파하여 적국의 땅을 통제한다.”⁴¹⁾라고 언급한다. 성인은 꾸준히 군비를 갖추었다가 적당한 때에 상대 국가를 무너뜨리고 그 국가의 제어권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또 『관자』는 패권국과 주변국의 관계에 있어서 성인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37) 『管子』, 「霸言」, “霸王之形, 象天則地, 化人易代, 創制天下, 等列諸侯, 賓屬四海, 時匡天下. 大國小之, 曲國正之, 強國弱之. 重國輕之, 亂國并之, 暴王殘之. 修其罪, 卑其列, 維其民, 然後王之. 夫豐國之謂霸, 兼正之國之謂王.”

38) 『管子』, 「霸言」, “得天下之衆者王, 得其半者霸.”

39) 楊柳, 「管子的國家關係思想探微」, 『管子學刊』 4, 2006, 10쪽 참조.

40) 『管子』, 「七法」, “所愛之國, 而獨利之, 所惡之國, 而獨害之, 則令行禁止. 是以聖王貴之. 勝一而服百, 則天下畏之矣, 立少而觀多, 則天下懷之矣. 罰有罪, 賞有功, 則天下從之矣.”

41) 『管子』, 「霸言」, “是以聖王務具其備, 而慎守其時. 以備待時, 以時興事, 時至而舉兵, 絕堅而攻國, 破大而制地.”

정령을 세워서 명령을 내리는 데는 사람의 도를 쓰고, 작록을 베푸는 데는 지형의 이로움을 따르는 도를 쓰며, 거병하여 출정하는 큰일에는 천시의 도를 썼다. 이 때문에 선대의 성왕이 정벌한 것은 반역하는 제후를 쳤지 순종하는 제후를 치지 않았고, 음험한 제후를 쳤지 미치지 못하는 제후를 치지 않았다. 국경 안은 정령으로 지휘하고, 제후들과 회합은 권력으로 모이게 했다. 가까이 있으면서 복종하지 않는 제후는 영토를 뺏어 근심하게 하고, 멀리 있으면서 따르지 않는 제후는 형벌로 위태롭게 했다. 반역하는 제후를 정벌하는 것은 무(武)고, 복종하는 제후를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은 문(文)이며, 문무를 모두 갖춘 것이 덕(德)이다.⁴²⁾

이곳에서 『관자』는 도를 인도·지도·천도로 구분하며 각각은 정치적 명령을 내리고 작위와 녹봉을 분배하며 전쟁과 같은 국가적인 큰일에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선왕, 다시 말해 이전 시기 성인은 천도에 근거하여 정벌을 추진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벌의 대상은 모두 정도를 벗어난 국가들이 된다. 외교의 측면에서 『관자』가 생각하는 성인이란 패권국의 수장으로서 무력을 과시하거나 동원함으로써 여러 국가들의 화합을 도모하며, 반역을 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벌함으로써 천하의 질서를 바로 잡는 인물이다. 『관자』 속에서 성인은 패도의 구현자로 묘사되며 성인의 주도 아래에서 패권국과 주변국들은 언제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Ⅶ. 나가는 말

중국철학에서 성인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성인에 대한 서술은 한 명의 학자 혹은 하나의 학파가 가진 전반적인 이념과 사고노선을 드러낸다. 즉 성인을 통해 그 학문이 추구하는 방향과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다. 성인은 『관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이다. 『관자』 속에서 성인은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며, 이로써 『관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사상을 대변한다.

우선 『관자』는 성인이란 도를 체득한 인물로 파악하는데, 이러한 도는 허라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성인은 허라는 특성을 체득한 까닭에 범인과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성인은 허에 입각하여 흔들림 없는 내면과 우수한 인식 기능을 확립함으로써 사소한 것도 함부로 지나치지 않고 매순간 적합한 선택을 내릴 수 있다. 당연히 이러한 선택은 국가를 경영하는 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형체와 명칭이 일치되지 않으면 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관자』는 성인이란 마땅히 형체와 명칭을 일치시키는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서술한다. 또한 『관자』는 법을 제정한 인물로서 성인을 지목하는데, 성인은 자신이 창조한 법에 근거하여 사회의 안정을 추구한다. 『관자』는 형체와 명칭을 일시키

42) 『管子』, 「霸言」, “立政出令用人道, 施爵祿用地道, 舉大事用天道。是故先王之伐也, 伐逆不伐順, 伐險不伐易, 伐過不伐及。四封之內, 以正使之, 諸侯之會, 以權致之。近而不服者, 以地患之, 遠而不聽者, 以刑危之。一而伐之, 武也, 服而舍之, 文也, 文武具滿, 德也。”

는 것과 법을 제정하는 것은 모두 사회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공로를 모두 성인에게로 돌린다.

성인은 재물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다. 『관자』에 따르면 성인은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 도시를 계획할 때부터 이익을 최대화 하는 데에 집중하고, 스스로 근검절약을 실천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선사한다. 나아가 성인이란 이와 같은 물질적인 조건을 기반으로 국정을 운영하여 부국과 강병을 동시에 달성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관자』는 성인이 다스리는 국가는 압도적인 무력에 근거하여 패권국이 되고 주변국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묘사한다. 『관자』가 생각하는 성인은 패권국의 수장으로서 자신을 따르는 국가에게는 이익을 주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정벌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변국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천하의 질서를 도모한다.

성인에 대한 『관자』의 논술들을 살펴보면 『관자』가 생각하는 성인은 뚜렷한 방향 혹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성인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를 경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자』의 성인을 경세(經世)적인 성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관자』의 학문이 시종일관 관심가지는 주제이자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역시 경세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관중(지), 장승구·신창호·고대혁·김필수(역), 『관자』, 소나무, 2015.

謝浩範·朱迎平, 『管子全譯』, 貴州人民出版社, 1996.

黎翔鳳, 『管子校注』, 中華書局, 2004.

曹峰, 『中國古代“名”的政治思想研究』, 上海古籍出版社, 2017.

陳鼓應, 『管子四篇詮釋』, 商務印書館, 2006.

馮友蘭, 『中國哲學史新編(上)』, 人民出版社, 1998.

정용미, 「『管子』의 정치관에 나타난 위민의식」, 『철학논총』 59, 새한철학회, 2010.

楊柳, 「管子的國家關係思想探微」, 『管子學刊』 4, 2006.

李居洋, 「『管子』在道家」, 『管子與齊文化』, 北京經濟學院出版社, 1990.

李增, 「『管子』法思想」, 『管子學刊』 1, 2001.

張越, 「論『管子』的富民思想」, 『管子學刊』 1, 2007.

鄭開, 「試論黃老政治哲學的“內聖外王之道”」, 『湖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2, 2019.

* 이 논문은 2021년 5월 26일에 투고되어,
2021년 6월 11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1년 6월 30일까지 심사하고,
2021년 7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The *Guan Zi*'s View of Saint Who Governing the Nation

Lee, Ohr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aint view of the *Guan Zi*. In Chinese philosophy, Saint is the points where ideas of one school or scholar are concentrated. Therefore, studying the *Guan Zi*'s view of Saint can bring you one step closer to what the *Guan Zi* is trying to express.

The Saint of the *Guan zi* is a man who has learned Tao, which has the characteristic of Xu. Therefore, *Guan zi*'s Saint is based on the characteristic of Xu, they acquire a superior mind and body, and sees through the nature of things and makes the most appropriate choice. The Saint of the *Guan Zi* is the only one person who can match object and name, and at the same time enact the law. He embodies political stability by matching object and name and actively operating laws.

In addition, Saint is well versed in accumulating wealth, he constructs a city to maximize profits and promotes the interests of the people through practice frugality. The Saints of the *Guan Zi* manage internal affairs based on material abundance. Therefore, Saint's activity is directly related to the stability of society and the enhancement of national power. According to the *Guan Zi*, Saint shows his pursuit of power, and based on overwhelming force, he influences neighboring countries to resolve conflic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pursue harmony.

As such, the *Guan Zi* describes adults as contributing to political stability based on their superior abilities. Therefore, these *Guan Zi*'s Saints can be consider Saint who governing the nation.

[Keywords] Saint, Xu, object and name, laws, pursuit of power

* Researcher, The Institute of The Humanities at Yeungnam University